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 전 교구 여전도회가 지원하여 교회주변 1·2·3교구 지역 집중 전도 3월 14~16일(월, 화, 수), 2인 1조의 축호전도로

**교**회는 금년에 실질적인 10%의 성장목표를 놓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구는 교구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교구별로 전도계획을 짜서 연초부터 전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도위원회(위원장 강형 장로)에서는 전 교인 전도운동을 위해 각 교구지역을 각 전도지회별로 분할하여 그 지역에 대해 책임전도를 실시하는 일과 매주 금요일을 전도의 날로 정하고 구역예배 후 2인 1조가 되어 담당 지역에 전도를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곳은 교회 주변지역의 복음화이다. 이를 위해 전도위원회에서는 교회 주변지역 -제1교구(역삼동), 제2교구(역삼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신사동), 제3교구(개포동, 일원

동, 자곡동, 수서동, 도곡동, 대치동, 포이동) 전도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에서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월, 화, 수) 3일간을 교회주변 집중 전도일로 정하고 제1교구부터 제11교구까지 88개 여전도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약 500여명이 동원되어 교회주변 1·2·3교구의 각 지역에 나누어서 집중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교구의 각 회장단은 교회 주변 지정교구(1·2·3교구)의 각 지역으로 나뉘어져 1·2·3교구의 부지역장(권사)과 여전도회 회장단이 사전에 구역을 정하고 준비한 전도 계획에 따라 2인 1조를 편성하여 축호전도를 하게 된다. 축호전도팀은 가벼운 선물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복음초청 메시지가 담긴 소책자, 전도지 등을 가지고 각 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게 된다.

집중전도일(3월 14~16일) 오전 10시에 갈릴리홀에서 모여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11시부터 1·2·3교구 각 여전도회장의 안내를 받아 할당된 전도지역에서 전도하게 된다.

이 일은 처음

| 교회주변 지정교구 |     |    | 지원 교구 여전도회 지회 |    |     |     |
|-----------|-----|----|---------------|----|-----|-----|
| 교구        | 소교구 | 지역 | 지원교구          | 하나 | 에스더 | 루디아 |
| 1         | 1-1 | 1  | 4-1           | ○  |     | ○   |
|           |     | 2  | 4-1           |    | ○   | ○   |
|           |     | 3  | 4-2           | ○  |     | ○   |
|           |     | 4  | 4-2           |    | ○   | ○   |
|           | 1-2 | 5  | 5-1           | ○  |     | ○   |
|           |     | 1  | 5-1           |    | ○   | ○   |
|           |     | 2  | 5-2           | ○  |     | ○   |
|           |     | 3  | 5-3           |    | ○   | ○   |
| 2         | 2-1 | 4  | 6-1           | ○  |     | ○   |
|           |     | 1  | 6-1           |    | ○   | ○   |
|           |     | 2  | 6-2           | ○  |     | ○   |
|           |     | 3  | 6-2           |    | ○   | ○   |
|           | 2-2 | 4  | 7-1           | ○  |     | ○   |
|           |     | 5  | 7-1           |    | ○   | ○   |
|           |     | 1  | 7-2           | ○  |     | ○   |
|           |     | 2  | 7-2           |    | ○   | ○   |
|           |     | 3  | 8-1           | ○  |     | ○   |
|           |     | 4  | 8-1           |    | ○   | ○   |
|           |     | 5  | 8-2           | ○  |     | ○   |
|           |     | 6  | 8-2           |    | ○   | ○   |
| 3         | 3-1 | 1  | 9-1           | ○  |     | ○   |
|           |     | 2  | 9-1           |    | ○   | ○   |
|           |     | 3  | 9-1           | ○  |     | ○   |
|           |     | 4  | 9-2           | ○  |     | ○   |
|           | 3-2 | 5  | 9-2           |    | ○   | ○   |
|           |     | 6  | 10-1          | ○  |     | ○   |
|           |     | 7  | 10-1          |    | ○   | ○   |
|           |     | 1  | 10-2          | ○  |     | ○   |
|           |     | 2  | 10-2          |    | ○   | ○   |
|           |     | 3  | 11-1          | ○  |     | ○   |
|           |     | 4  | 11-1          |    | ○   | ○   |
|           |     | 5  | 11-2          | ○  |     | ○   |
|           |     | 6  | 11-2          |    | ○   | ○   |

실시하는 일이지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 교회 주변 지역을 집중전도하는데 의미가 있고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지가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1·2·3교구에

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안내와 효과적인 전도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참여한 모든 대원들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즐거움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전도회의 지원 구역은 위의 표와 같다.

## 금주의 교회행사

### 1. 오늘 성찬식

I, II, III, IV부 예배시

오늘 I, II, III, IV부 예배시에 성찬식이 거행된다. 금년들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성찬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신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와 회개, 결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목회자 세미나 개강

3월 6일(월) 오후 1시

'사회변화와 교회성장'이란 주제로 제3회 4학기 목회자세미나가 3월 6일 개강하여 5월 8일까지 계속된다. 예 목회자 세미나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와 이중표 목

사와 9명의 강사의 특강으로 실시된다.

### 3.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5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3월 6일(월) 오전 9시에 5교구가 시작한다. 4교구는 3월 6일 오전 9시까지이다.

### 4. 오늘 공동의회

오늘 IV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3월 19일에 실시할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에 관한 건으로 공동의회가 모인다.

### 제9대 안수집사 60명

### 제37대 권사 70명

### 선출키로

3월 19일 IV부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오늘 공동의회에서 투표방법 결정

교회는 제9대 안수집사 60명과 제37대 권사 70명을 피택키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19일 IV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하기로 했다.

교회는 3월 5일(오늘) IV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방법(피택위원의 일정수를 공천하는 것을 당회에 위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회가 공천한 사람 중에서 3월 19일 투표하게 된다.

### 김영대 선교사

### 선교지, 수단으로 확정

교회는 회교권 지역 선교사로 파송하여 현재 애급에서 야콥이 연수 및 선교지 탐색을 하고 있는 김영대 선교사의 선교지를 아프리카 수단으로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김영대 선교사가 수단 선교의 가능성을 위해 여러 경로의 정보와 현지 답사를 통해 보고해온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으로, 수단에서는 현지인 교회 목회, 신학교 강의, 현지 개종자 그룹을 위한 제자훈련 및 그곳 거주 한인교회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다. 또 모든 문화환경이 회교권의 다른 나라보다 못하지만 선교 열매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김형대 선교사가 보고해옴으로 이곳을 선교지로 정하게 됐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6 ●

# 일곱째 나팔재앙 (계 11:14-19)

**이** 일곱째 나팔 재앙은 마지막 종말의 내용인 일곱 대접재앙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있게 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을 아주 극적으로 본문에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후반부(12-22장)에 나올 사건의 서론이요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본문의 내용 분해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화를 선포했습니다. 이 마지막 화는 두려움과 비극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큰 환난 속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전혀 없었던 큰 화가 될 것입니다.

15-18절까지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을 불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일어나는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15절 말씀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16, 17절에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십사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고 사람이 머리를 들고 나타나면 안됩니다. 17절에는 경배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며 둘째는 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그는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많은 나라들이 마지막 배신을 하지만 결국 파괴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에서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역사 속에서 진행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는 땅 위에서의 심판의 추수가 있고, 두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의 재앙이 있겠고, 세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고, 네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사건에 있겠고, 여섯번째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신천신지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 2. 일곱 나팔을 불 때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권세, 인간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접수하는 선언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15절은 렌델의 할렐루야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되고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세상의 나라는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큰 소리쳤지만 결국 나치정권은 15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제국도, 스탈린과 공산정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권력도 만 5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49년에 죽고 말았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고 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될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기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또한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곧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공평무사한 판단을 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순종과 감사와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번째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일한대로 행한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분노가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저항입니다. 시편 2편 1-3절까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제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들의 분노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미 벌써 예언되어져 있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성취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남김없이 성취됩니다.

## 3. 그 결과

이러한 것의 마지막 결과가 19절에 나와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의 문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닫혀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서 하늘의 성전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고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본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에 금으로 씩웁니다. 이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거기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요시야 시대 이전에 분실되었다가 성전을 창조하다가 발견된 책도 있던 이 둘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분실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살아있는 언약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이고 그곳이 바로 사회의 은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임합니다.

요즘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그냥 보아서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TV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습니까만 유럽은 지금이 가장 추운 겨울인데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가 극심합니다. 이것을 엘리노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만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로 유럽에 14만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사회의 은총을 다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중등부 수련회에서 쓴 편지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입춘도 지났지만 조금은 서늘한 이 때에 몸은 건강하신지요? 저는 지금 춘천받고자 온 수련회 둘째날(21일)에 이렇게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끈기있게 드리고 기도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운동회도 즐겁게 했고 모두 신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부하기 무척 힘들지요? 학교에 가서 자주 못 밟지만 꼭 성공하시고 건강하게 오내오내 사시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시면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뉘시느라 힘들지요. 제가 나이가 들었으면 보현하나 드는건데..... 힘들어도 저를 생각하시고, 걱정 가지세요. 저승한 마음 감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할나는 매일 목포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열음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수련회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5.2.21

딸 김현나 용선



## 사랑의 꽃

오 회 승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원)

주님!  
누가 안답니까?  
하늘의 낮추신  
그 사랑을

저만치서 홀로 앉아  
하고픈 말 침묵하시며  
그 하늘의 외로움을  
누가 안답니까?

당신은 이 몸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바람되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언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자신이 서글퍼집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기만을 의식하지 않게  
제를 도와주시옵소서

결쳐 흐른 고통속에  
근심을 삼키고  
잘로 바치는  
기나긴 기도의 여정

주님!  
당신의 그 위엄하신  
눈빛 앞에서  
내 기도의 향을  
올립니다

다독 관하여 피어질  
대 안의 꽃이  
향락 웃음 짓고  
피어질  
사랑의 꽃으로 말입니다

##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먼저 좋은 수련회에 오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삼 '특강을 내가 한다면'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많이 깜짝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 하시는지를 느꼈습니다.

부흥회 때 설교말씀을 들으며 규모있는 자가 되기 위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또 특강을 통해 목았던 여러가지 사색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심을 발휘했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와서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함께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규모있는 자, 생활에 규모있는 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잘 모르던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산상기도회 때 힙개를 하며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배운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에 적용하여 규모있는 사람, 남들 앞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 찬양대원통신 / 가브리엘찬양대 ◆

## 보석같은 찬양대원

"우리 주위에는 찬양대석에  
앉기를 소원하면서도....."

박 홍 규

(집사, 가브리엘찬양대 부대장)



가브리엘 찬양대에 들어온 후 아직까지 악보를 잘 읽을 줄 몰라 고생이 되고, 연습 중 음정이 부정확하고 특히 어느 곳에서 반복하여 박자가 틀릴 때는 여간 당황스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악보를 좀더 열심히 읽고 할 수만 있다면 외워서 찬양을 하려고 한다.

특히 지난 년 때에는 어찌 어려웠던지 가브리엘 부대장이라는 중직을 맡지 않았더라면 연합찬양대에 세게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 무렵에 옆에 섰던 다른 찬양대 대원이 '잘한다'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평가해 줄 때가 됐다. 많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평가를 받으면 힘이 나고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긴다. 얼마전 훌륭한 찬양대원인 어느 찬양대 부대장이 자기도 많이 틀린다는 고백을 할 때 내게 위로가 되고 '하, 틀린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구나!' 싶었다.

보석 가공공장에 간 열이 있다.

평범한 유리조각 같은데 사파이어 원석이라고 했다. 그것을 갈고 닦으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귀한 원석이라도 장인이 몰라주면 유리조각과 같이 땅에 묻혀 있을 뿐이고 사파이어 원석도 갈고 닦지 않으면 값비싼 보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찬양대석에 앉기를 소원하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분은 없는지, 잘고 닦으면 훌륭한 찬양대원이 될 수 있을텐데 그 가능성을 의심하고 계신분은 없으신지 모르겠다.

찬양대원들을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기 위해 기쁨으로 땀 흘리는 지휘자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세력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로 깨우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귀히 여가며, 손잡고 함께 노력하여 가브리엘 찬양대가 더욱 부흥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 ◀ 칼럼 / 역삼동에서 ▶

문화전쟁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김 찬 곤

(목사, 13교구 지도, 소망부 지도)

모래시계의 열풍이 휘쓸고 지나갔다. 방송의 영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드라마였다. 일찌기 누군가가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TV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떠날 줄 모르던 아이들의 거위가 시력을 상실하고 안경을 끼게 되었다. 그리고 무분별한 시청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전해야 될 정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TV의 네모난 상자가 정말로 '바보상자'라기 보다는 '병신을 만드는 상자'라고 혹평을 해도 맞을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방송전파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학교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27분 TV를 본다고 한다. 이것을 주간으로 치면 17시간 11분이 되고 연간으로 치면 894시간 15분이 된다. 한해에 한달이 넘는 38일간을 꼬박 TV앞에 앉는 셈이다. 미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TV와 아버지 중 어느 쪽을 포기하겠느냐는 설문에서 60%의 어린이가 TV를 택하고 아버지를 포기하겠다고 대답했다. TV는 가족간의 분리, 상호고립, 규격문화와 통제된 습관, 초현대적인 생활방식 등을 가르치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장가 대신 TV의 광고 노래로 길들여진 TV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TV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서 아버지보다는 TV에 훨씬 더 정이 든다. 상상력은 갈수록 고갈되고, 책은 갈수록 멀어지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느새 중독이 되어 TV는 드디어 한 집안의 가장의 위치에 올라섰다.

대중매체가 청소년 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각한 환경문제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지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건강한 미래'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요즘 선진국에서는 TV에 대한 대응은 자성의 부르짖음이 높아졌다. TV 예방접종, TV 의식화 훈련 등의 비디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3월부터 종횡유선방송(CATV)시대가 열리게 된다. 24시간 켜지 않고 30여개의 채널에서 엄청난 방송전파는 전달되어질 것이다. 현대는 정보시대에 기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기도 할 것이지만, 이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견되어진다. 특히 총알보다 더 무서운 문화전쟁으로까지 불려져서는 상황에서 기독교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한 이때인지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여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팔짱과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한다.

# 1995년도 상반기 6,500여 만원의 장학금 지급

교회는 교회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나 신학연구원에 다니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5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확정하고 다음 주일(3월 12일) 저녁찬양예배 후 장학금 수여식을 갖기로 했다.

장학생은 신학연구원생, 대학생, 중·고등학생으로 총 100여명, 장학금 지급 규모는 6,500여만원에 이른다. 한편 교회는 강남구청에서 의뢰된 10명에게도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다음 주일(3월 12일) 저녁찬양예배 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 1. 충현장학생

### 가. 대학생

신준성 박경민 황선희 강영림 손지영 안명철 전진배 김형일 박현주 채은실 김지영 오용진 김형민 김은정 최은정 이시이토모히사 김영림 임성희 오화진 박희성 김옥경

### 나. 고등학생

최형원 김현경 박원영 김봉선 구혜경 윤철중 이민욱 강선미 이재기 신병철 김명민 임지성 정지현 김신남 안의정 김요셉 조혜영 안명혜 김진세 최면선 이은정

### 다. 중학생

정시은 김한석 서한희 박병규 김형선 이승봉 염혜숙 황인옥 김선미 김에스라 최지영 유제근 나문주 황순용 이우현 이영환 장혜영

## 2. 소석장학생

### 가. 대학생

배지은 천성민 권영일 한창훈 박지연 박태진 박윤경 이산열 우종웅 최지연 송해란 최정탁 이문자 신규창 동현정 박경민 김경성 박명숙 문근식

## 3. 신학원생 장학생

### 가. 신학원생

이준경 남상범 김윤식 박노철 나길수 박성자 오부현 염현일

## 4. 사랑의 장학생

### 가. 강남구청에서 추천한 장학생

박종우 최수복 정대근 마영희 유현용 박경준 오세욱 윤종진 이승한 이은아

## 5. 위탁장학생

### 가. 지명위탁 장학생

이상욱 도유정 유성렬

## 에바다부 이태훈, 김균태 교사 아시아 농아인체육대회에서 금2, 은2, 동4개 획득

지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만 대북시에서 개최된 아시아농아인 체육대회에 본 교회 에바다부 박인기 집사가 인솔 임원으로, 이태훈, 김균태 교사가 선수로 참가하여 모두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내어 충현인의 자랑이 되었다.

특히 이태훈 교사(사진 우측)는 100M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200M, 1,6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2관왕이 되었으며 김균태 교사는 400M 계주, 높이뛰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내었다.

금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모두 6개국에 참가하였는데 한국은 금5, 은5, 동9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 전화로 신성종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도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세지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과 생식당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에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3월 6일(월)~3월 9일(목) 부산 남부민 중앙교회 부흥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3월 6일(월)~7일(화) 성결대학교 춘계 부흥회 인도, 6일(월) 목회자 세미나 개강예배 설교, 8일(수) 국민일보 사원예배 설교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성찬식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유지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안수집사와 권사에 피택되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전국적인 가뭄을 해결시켜 주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김립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강남구내 교구 집중전도를 축복하소서.

## 선교 전망 - 선교지를 다녀와서

## 회교권 선교의 전망을 새롭게 이스라엘에 성지연구소 설립키로

선교지의 선교현황을 돌아보며 회교권 선교의 장기선교 계획과 애급과 이스라엘 선교지의 현안문제를 파악키 위해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 윤명식, 남선우, 노광현 장로 일행이 지난 2월 6일~16일(10일간)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독일을 다녀왔다.

선교순방팀은 각 선교지의 현황을 살피고 현안 등을 검토하며 바람직한 선교사역에 대해 현지 선교사 등과 논의했다. 선교지 순방결과를 놓고 당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하고 회교권 선교에 대한 정리를 하며 전망을 새롭게 했다.

### - 이집트

- 이집트를 1995년도 9월 COME세미나 대상지역으로 한다.
- 현재 애급에서 언어훈련하며 선교지역을 탐색하고 있는 김영대 선교사의 선교지를 선교지 환경이나 사역의 방향(신학교 운영, 제자훈련, 교회 목회) 등을 생각할 때 수단이 적임지로

판단, 수단으로 결정했다.

### - 이스라엘

이스라엘 선교부에서 청원한 성지연구소 설립을 허락했다. 우선 건축용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 등의 문제는 교회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였다.

### - 터키

이곳은 바울의 전도 중심지였으며 기독교가 지배하던 곳이었다. 또한 이곳은 세계선교의 출발지였으나 지금은 회교도에 의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쇠퇴하고 학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의 선교는 세계선교의 중점이라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회교권 선교를 위해서 꼭 진출해야 되는 선교지라 생각되어 OO 전도사(충현교회 방문한 적 있음)를 1995년 COME세미나에 특별히 초청하여 훈련시킨 다음 수리아의 안디옥에 파송, 원주민 교회를 개척, 사역토록 결정하였다.



▲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와 선교협의를 하면서